



1일 창춘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컬링경기에서 한국의 양세영이 스톤의 릴리스를 준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남자 컬링·이규혁 빙속 1,000m 2연패

한국 빙상 강국 '우뚛'

한국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의 '말형' 이규혁(29·서울시청)이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2관왕 위업을 이뤘다.

또 한국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강원도청)도 동계아시안게임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규혁은 1일 중국 창춘 시내 지린성 스피드 스케이팅 링크에서 열린 남자 1,000m에서 가장 빠른 1분09초86으로 결승선을 통과, 종전 아시아 최고기록(1분11초74)을 0.01초 88이나 앞당기며 금메달을 땀다.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 때 2관왕(1,000m, 1,500m)에 올랐던 이규혁은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주 종목인 1,000m까지 제패, 동계아시안게임 2회 연속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선수 중 이번 대회 2관왕은 쇼트트랙 스케이팅 남자 1,000m와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한국체대)에 이어 두 번째. 또 문준(24·성남시청)과 최재봉(27·동두천시청)도 1분10초45와 1분10초92의 기록으로 2,3위를 차지했다.

문준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최재봉은 '동일 국가가 메달 3개를 가져갈 수 없다'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에 따라 동메달을 4위인 나카지마 다카하루(일본·1분11초35)에게 양보했다.

한국은 같은 날 창춘시립스케이팅링크에서 펼쳐진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컬링 결승전에서 일본과 연장 승부 끝에 3-2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남자부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1일 창춘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 한국의 이규혁이 질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승부는 연장 1회전에서 결정됐다. 1엔드부터 선제점을 뽑아낸 한국은 6엔드에서 일본에 1점을 내줘 첫 위기를 맞았다. 한국은 8엔드에서 1점을 달아내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10엔드에서 또 한번 동점을 허용해 2-2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일본의 선공으로 시작된 연장 1회전에서 한국은 마지막 돌던지기 주자로 나선 스킵(주장) 이재호(31·강원도청)가 멋지게 일본의 돌을 중앙에서 밀어내면서 1점을 추가해 3-2로 승리를 확정,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 프로야구 개막전 사상 첫 평일 야간경기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전은 사상 처음으로 평일 야간 경기로 열리고 개막전 시리즈도 2연전이 아닌 3연전으로 치러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07년 정규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현대 유니콘스 정상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올 시즌은 8개 구단으로 끌고 간다'는 KBO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페넌트레이스 일정은 8개팀 위주로 편성됐다.

올해 개막전은 4월6일 대구(삼성-두산), 대전(한화-SK), 수원(현대-롯데), 잠실(LG-KIA)에서 일제히 펼쳐진다.

■ KBO 정규 시즌 일정 발표

팀당 126경기, 팀간 18차전

프로야구는 이날부터 9월2일까지 6개월간 열전에 돌입하며 팀당 126경기, 팀간 18차전을 벌인다.

울스타전은 7월17일 거행되고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한여름 야구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올해 초복(7월15일)과 말복(8월14일) 사이 야심 차게 도입된 서머리그는 팀당 23경

기씩 총 92경기로 치러진다. 서머리그 개막전은 잠실(LG-KIA), 문학(SK-두산), 수원(현대-삼성), 대전(한화-롯데)에서 벌어진다.

서머리그 성적은 정규 시즌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 기간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은 2여왕의 상금을 받는다. 이 기간 최우수선수는 500만원, 우수투수와 우수타자도 각각 200만원의 짝퉁 상금을 챙긴다.

KBO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블헤더를 배제했고 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홈·원정 9연전은 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디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김진우 "올 목표 20승"

체중 줄이고 작년 말부터 훈련에 열중 투수코치 "컨디션 최고...피칭도 완벽"

"모든 게 퍼펙트, 20승도 자신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서정환 KIA 감독은 김진우에 대해 "아직 이른감은 있지만 모든 게 훌륭하다. KIA 투수 중 가장 완벽한 피칭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근 투수코치도 "지금까지 본 김진우의 컨디션 가운데 최상이다. 올 시즌은 부상만 없다면 20승도 가능할 듯 싶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원조 괴물' 김진우(24·KIA)가 개인 첫 '20승' 달성을 목표로 기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김진우가 올 시즌 20승을 올린다면 한국 프로야구 사상 99년 정민태(현대·20승 7패) 이후 7년만이다. 그만큼 투수에 게 한 시즌 20승 달성은 꿈의 승수이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 중인 김진우는 현재 이지사이드(70~80%의 힘으로 던지는 피칭)를 소화하고 있다. 5일 부턴 100% 볼테 피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해도 하프 피칭(50%)마저 힘들어 했던 시기지만, 2006시즌 마감 이후 한눈 팔지 않고 훈련한 덕택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김진우는 지난해 11월부터 2007시즌을 대비해 힘없이 달려왔다.

12월 중순까지 20여일 동안 일본 미야자키에서 동계 마무리 훈련을 100% 소화했고, 지난 9일에는 미국 팜로크로 넘어가

체력 키우기에 구슬땀을 쏟았다. 118kg를 넘나들던 육중한 몸도 110kg 이하로 만들어 냈다. 올 시즌을 자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02년 역대 신인 최고액인 7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야구 KIA에 입단한 김진우는 그해 신인 최다 탈삼진(172개)을 기록하며 12승을 올렸고, '천재 투수'라는 극찬을 듣는 유망주였다. 192cm에 93kg으로 신체적 조건도 완벽했다. 큰 키에서 뿌려대는 150km를 넘나드는 직구와 낙차 큰 커브는 상대 타자들이 번트조차 대가 힘들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프로 데뷔 2년차엔 20승 달성도 가능한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들었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잘 나가던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2002년 데뷔 시절 발목 염좌에 시달렸던 김진우는 결국 2004년 2월 우측 대퇴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03년엔 11승으로 선방했으나, 이후 2004년 7승, 2005년 6승 등 하향세로 돌아섰다.

그의 이름앞엔 어느새 '천재투수' 대신 '미완의 대기'라는 불명예스런 수식어가 붙어다녔다.

다행히 2006년엔 시즌 초반 3연승을 질주하며 15승 달성도 가능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소흉근(어깨와 가슴 사이 근육) 부상으로 10승(4패)만을 기록하는 불운을 겪었다. 잦은 부상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성적은 무리가 아니냐는 전망



김진우가 1일 일본 미야자키 KIA 스프링 캠프에서 메디슨볼로 어깨를 단련하고 있다.

도 나왔다.

그러나 김진우는 올해엔 20승 달성에 자신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신체적 컨디션이나 볼 스피드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뜻이다.

/lucky@kwangju.co.kr



이승엽 "반갑네 동료들"

이승엽(앞쪽 가운데)이 스프링캠프 첫날인 1일 일본 미야자키 선마린스타디움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바 롯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내야수 고사카 마코토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승엽(앞쪽 가운데)이 스프링캠프 첫날인 1일 일본 미야자키 선마린스타디움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바 롯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내야수 고사카 마코토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면드래프트, 한국야구 망하는 길"

■ KIA 서정환 감독 인터뷰

"전면 드래프트제는 한국야구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2007시즌 준비에 한창인 서정환 KIA감독은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전면 드래프트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감독은 "일단 KIA 구단만 봐라. 팬들은 타 지역 선수보다는 연고출신인 이종범의 한방에 더 흥쾌함을 느낀다"면서 "한국 정서상 프랜차이즈 스타가 없는 구단은 팬들의 인기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유소년 야구 투자 줄고

팬들의 흥미도 떨어져

되레 연고지명제 확대해야

에 없게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감독은 이어 "스포츠가 무엇이나"고 반문한 뒤 "스포츠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팬들은 내 고향 출신이 내 고향 구단에서 잘 뛰면 더욱 애정을 갖게되고, 지역간 대결을 통해 강한 승부욕도 느낀

다"면서 "침체된 한국야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오히려 연고지명제를 확대해 프랜차이즈 스타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감독은 이밖에 전면드래프트제의 다른 폐해로 유소년 야구의 위축도 지적했다.

서 감독은 "KIA는 매년 지역 초·중·고교 야구팀에 수억원대 야구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연고 지명제 때문"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전면 드래프트제가 시행되면 어느 구단이 연고지역 유소년 야구에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느냐"며 유소년 야구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lucky@kwangju.co.kr